마을 곳곳 문화재… 빼어난 풍광 발길 잡아

맛좋은 감귤 생산지 '효돈'
명승 '쇠소깍'으로 유명
해마다 여름이면 축제…
테우체험 등 즐길거리 풍성

가마터 등 비지정 문화재에
2000년 마을 역사 고스란히
"역사 프로그램 발굴·운영"

서귀포시 효돈동에 위치한 명승 쇠소깍에서는 테우체험 등이 운영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효돈동 제공

서귀포시 효돈동은 제주에서도 맛있는 감귤 생산지이자 명승 '쇠소깍'으로 잘 알려진 마을이다. 효돈동의 옛 이름은 '쉐둔' 또는 '쉐돈'으로 불렀다. 쉐는 소(牛)를 뜻하는 제주어이고, 둔(屯)은 무리라는 뜻으로 소를 모아 기르던 곳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쉐둔을 한자로 표기해 우둔(牛屯)으로 부르다 18세기 중반부터는 '효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효돈(孝敦)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멋진 풍광과 테우체험장으로 입소문이 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8호로 지정된 쇠소깍의 '쇠'도 효돈의 옛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소'는 연못을, '깍'은 접미사로 끝을 의미하는 제주어로, 효돈천의 하구를 가리키는 쇠소깍은 현무암 지하를 흐르는 물이 분출해 바닷물과 만나 깊은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다.

쇠소깍에서는 테우와 조각배, 나룻배 체험을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2000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아 상록수림,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비경에 취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쇠소깍에서는 효돈동연합청년회가 주관하는 축제도 열린다. 올해도 8월 24~25일 이틀간 전통놀이와 어린이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이색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효돈중학교 인근의 효돈천 일대 하효동 유물산포지는 탐라시대 유물인 곽지리식 토기가 발견된 곳이다. 이는 효돈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2000년 전에 마을이 형성돼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역사가 깊은 만큼 비지정 문화재도 많은데 신효동 기와가마터, 포제단, 소금코지 등 11개의 비지정 문화재와 명승 등이 산재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효돈동주민센터와 함께 문화재의 위치에서부터 내용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안내판을 오는 8월까지 제작해 신효마을과 하효마을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계획이다.

하효 해변에서는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핑교실을 운영, 청소년들이 레저 전문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하효 해변에서는 제트보트 등을 운영하고 있고, 하효항을 주변으로 맛집 등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음식거리가 형성되고 있다.

하효경로당에서는 365일 행복 경로당이 운영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기부문화가 어느 곳보다 활성화된 덕분인데 점심 준비는 마을회, 부녀회 등에서도 손을 보탠다.

신효마을 일원에서는 올해 1.8㎞ 구간에서 제주 돌담길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제주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받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종진 효돈동 주민자치위원장은 "2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효돈동이 품격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문화와 역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장애인 자립기회 제공에 민관 '맞손'

이도2동 장애인취업박람회
오늘 탐라장애인복지관서

제주시 이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봉유, 변순옥)는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주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제5회 장애인취업박람회 동네잡(JOB)'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 협력으로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사회 참여와 자립·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도2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날 박람회에선 제주시 지역 다수의 구인업체가 참가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참여자들의 구직신청 및 면접 준비를 위한 사진 촬영, 이력서 코칭, 면접 메이크업 부스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라인댄스 공연, 장애인 바리스타의 핸드드립 커피 시연 및 무료 시음 행사, 천연 페브리즈 만들기 체험부스 등도 진행된다.

변순옥 위원장은 "이 행사가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자립·자활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값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통해 2015년 10명, 2016년 4명, 2017년 5명, 2018년 3명의 현장취업 성과를 낸 바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안전하고 깨끗이"… 달라지는 성산항

서귀포시, 폐컨테이너 정비
비산먼지 방지막 등 설치도

서귀포시는 성산포항 상항(화물부두) 구역에 방치돼 항내 미관을 저해하던 폐컨테이너에 대한 정비를 최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성산포항 내 여객부두와 화물구역 경계 구역에서는 하역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와 관광객들의 화물구역 진입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경계구역에 쌓여져 있었고, 오랜 기간(컨테이너가) 방치되면서 해수 및 해풍으로 인한 부식 정도가 심해져 항내 미관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성산포항 항운노조, 해운선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산포항 화물부두 일대의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비산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도와 협의한 뒤 비산방지막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항내 시설물 안전진단 및 기능점검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성산포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마을 걸으며 화합 다져요"
봉개동, 역사문화 탐방

제주시 봉개동(동장 송두영)과 봉개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성철)는 지난 8일 지역주민과 정착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서 회천 역사문화를 알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탐방하는 '마실가기 시즌 2'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봉개동 복지회관에서 출발해 동·서회천 마을의 섯구릉, 남선밭당, 역적수월, 새미물, 4·3희생자위령비, 오석불, 새미하로산당, 맥파이브루어리 등 구석구석을 걸으며 이웃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봉개동과 동주민자치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숨겨진 마을유적지 등을 조사·탐방하는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도모에 앞장서기도 했다. 김현석기자

시민이 함께 손잡고 만드는 문화도시

서귀포 시민리더단 간담회
문화도시 추진상황 공유도

시민주도형 도시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간담회가 마련됐다.

서귀포시는 10일 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 문화도시 추진 시민리더단 대표와의 토론·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

이날 토론·간담회에는 문화도시 추진 시민리더단 참여단체인 서귀포문화원, 예총서귀포지회, 제주올레, 서귀포문화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차문화원, 지역주민협의회, 청년정책협의체문화분과,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작가의산책길 해설사회, 마을회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문화도시 추진시민리더단 대표들은 라해문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문화도시 이해하기' 특강을 듣고 서귀포 문화도시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민 거버넌스로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도시 추진지원단장인 김태엽 부시장은 "서귀포 문화도시 지정은 서귀포 시민들의 문화를 향한 염원"이라며 "서귀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현안과제로 누구보다도 시민리더단들의 소중한 역할이 중요하다" 고 격려했다. 이태윤기자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구좌읍, 환경개선사업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박순태)와 구좌로타리클럽(회장 김두남),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지난 9일 지역 내 주거환경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도배 및 장판 교체, 설거지대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들 민관 기관은 2017년 5월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집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월 1가정씩 도배, 전등 교체, 집안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순태 구좌읍장은 "지역의 기관들과 서로 협력하고 행정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